

고은 불교대하소설

“어서... 이리요”
먼저 바다에 뛰어 든 인담이
낭자의 발 밑에 있는 뗏목을 잡아 당겼다
낭자는 물 속의 인담에게 안겨야 하였다



82

인 담은 혼자서 가는 길보다 정녕 낭자 소식과 함께 가는 길이 지루한 여음이어서 훨씬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 마을 앞을 지날 때였다. 한 집에 초상이 나서 자봉에는 땅자의 옷가지가 울려져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데 개 짖는 소리가 없는 대신 곡(哭)의 때가 되었는지 곡성이 들려왔다.

인담은 낭자를 흠짓 쳐다보았다. 바로 그녀가 떠난 뒤의 늙은 아버지가 장차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런 번거로운 곡성 따위가 들리는 일 없이 시신이야 오무막 흠집 안에서 육탈될 것이었다. 아니 육탈에 앞서 새나 짐승들이 뜰어먹을 것은 뜰어 먹히고 쪼아먹힐 것은 쪼아 먹으며 어느새 깨끗한 해골 하나로 남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삼라만상 가운데 중생이러면 마땅히 죽음이든 그런 중생의 한 가지와 다를 바 없어 마땅하다.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장식하고 경건한 뜻을 부여하는 일로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영예와는 달리 세상 그대로 살다가 세상 그대로 가는 이치를 벌써 정해 따위로 그르치는 것은 아닌가.

무슨 재미 한 마리아 불꽃 한 마리의 죽음이 어찌 사람의 그것과 다를 바 있었는가. 고양이와 새 죽음을 세상에 보이지 않고 코끼리가 새 죽은 꼬라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버리는 것에서도 사람은 마땅히 배워야 할 일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담이 걸음을 재촉하자 그의 뒤를 따르던 낭자 소식도 걸음을 재촉하였다.

둘의 세발 길을 혼자 매고 있던 한 노인이 흐린 눈으로 두사람의 걸음걸이를

바라보다가 “저것들이 지금은 두사람인데 장차 2백명은 넘는 3대 자손을 풀 모양이며, 내 눈에 저런 헛것이 보였으니... 내가 갈 날도 머지 않았나보아...”라고 중얼거렸다.

비는 너무 검푸른 나머지 사나운 일새로 서늘이 무섭고 비 줄기는 진작 열매가 패어 불룩하였다. 그런 비속에서 마지막 잡초를 뽑고 피사리도 걸하는 들녘은 그 해별 따갑기가 여간 아니어서 꼭 힘 맞는 아픔으로 온통 얼얼하였다.

그들은 좀더 북쪽 바닷가로 향하였다.

거기서부터는 인담에게는 눈감고도 갈 수 있었다. 개활에 때어 둔 때때는 누가 건드리지도 않은채 그대로 있으면서 타고 온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인담은 여기에 이르러 문득 그의 몸 속에서 이레까지 지탱해주고 있던 지대 같은 힘이 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풀쭉 주저앉았다.

“10년이 하루 저녁(十年一昔)이라...”라고 가벼운 탄식조차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표류
 몸을 움추려들게 할 만큼 어떤 한기를 지니고 있었다. 바닷가의 소나무들이 제법 소리를 낼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소나무들을 울타리로 삼은 밤곡식들은 벌써 일새들이 야단치기 시작하였다.

낭자 소식의 머리칼도 풀어져 있었다. 그 머리칼을 그녀는 다시 썼다.

인담이 그런 귀머거리한테 말을 던졌다.
 “그대에게는 20년의 나머지라도 받았는지... 오래 이 세상에 있겠구나. 그대 아버지의 수명까지도 이어 받는다면 더 오래 있게 되겠구나...”

낭자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할 터이고 설령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 뜻을 짐작할 수 없을 터였다.

그렇다면 인담은 그 자신과 주고 받는 독백으로 힘 빠진 몸을 달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여기서 ‘20년의 나머지’란 석가모니부처님이 80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것은 그 자신이 20년의 수명을 즐겼다는 것을 뜻한다. 본디 부처님의 사바세계 수명은 1

그녀의 옷을 풀었고 어떻게 나그네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었던 말인가.

아 버지가 시킨 일인가. 팔 스스로 그랬던 것인가.

이런 장난같은 생각 때문에 인담은 다시 일어서서 그 생각들을 털어버렸다.

“도(道)가 좁쌀 한 톨에도 들어있던 말

...”
 “하기가 이 바다 위의 섬도 처음에는 사람이 탁 트여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지

만 세월이 가면 이 커다란 하늘과 바다의 공간이야말로 여간 답답한 곳도 아니다. 어디 온산혈벽이 따로 있더라 말인가. 내 마음 속이 온산을 만들고 철벽을 세워 거기에 갈하는 것이지.”

비랑과 파도를 자세히 살폈다.

그때였다. 때때의 한쪽이 풀어서 뗏목 서너개가 떨어져 나가 파도 위로 흩어졌다. 인담이 파도 속으로 풍덩 들어가 뗏목 풀어진 때를 다시 때는 동안 여간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않게 되었다. 잔물도 두어 모금 들어켜야 하였다.

“으”하고 낭자가 처음으로 소리를 낼



무욕도로 가던 때배가 난파되면서 인담과 낭자는...

그가 충청도 내포 지방과 백마강 일대와 바다 가까이 있는 여러 산들을 파다가 누가 등을 밀어서였는지 무인도인 무욕도에 건너간 일이 세월 저쪽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특히 스승이 없는 중(無師)이었던 그에게 꿈 속의 고려시대 선사 담인화상이 나타나 스승이 되었고 그 스승의 이름을 개구로 놓아 인담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바 되었다.

제가 고려의 빼어난 시인 일촌의 시문집까지 암굴 속에서 찾아내는 기연(奇緣)이 있어 난 뒤 무욕도에 하나를 수행자들이 모여들어 한 가풍을 이루기까지 하였다.

우녀와의 인연도 남다른 것이었다. 또한 그가 예지종지해은 일촌의 시와 관련하여 일촌 후산인 불이라는 또 하나의 도반도 다른 도반들과 더불어 그와의 나날을 함께 한 인연도 각별한 것이었다.

별들이 시작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였다. 그런데 해가 제법 기울게 되자 어디다 감추고 있었는지 먹구름들이 갑자기 나타나 공중을 채웠다.

술을 일기 시작하는 바람도 땀에 젖은

백색였다. 그런 것을 그는 20년을 장차의 말세 사람들을 위해서 줄여버리고 80세로 세상을 마감한 것이었다. 이것이 부처님이 남긴 보살다운 은덕이어서 이를 배운 사람이거나 다른 중생들이 다같이 제 수명에서 얼마씩 줄여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지 모른다.

낭자는 살펴보면 볼수록 근기가 여간 담담한 것이 아니어서 우선 며칠씩 굶고도 관상했다. 차츰 눈이 익숙한 나머지라 길을 걸다가 흐르는 도랑물에 얼굴을 씻고 나면 새삼스럽게 동근 달의 모양이었다.

그런 낭자인지라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거니와 그녀 자신은 인담과의 동행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슬픔 따위를 그녀 자신이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러므로 굳이 인담이 그것을 달랠 까닭도 없었다.

누구의 말을 듣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그녀 자신이 먼저 누구의 입에 앞서 일을 마치는 것이었다.

인담은 소고개 오무막의 밤중에 그의 옷이 풀어져 있었던 사실이 아무래도 이상하였다. 이렇게 सू된 낭자가 어떻게 나

인가. 좁쌀같은 생각이나 하는 나를 어디다 쓸 것인가. 이 고장에서 뱅뱅잇속 같다는 말이 있지. 나도 뱅뱅잇속 보다 더 나은 데가 없는 셈이로다... 건너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지.”

바람을 거스르지만 불꽃이어서 때때는 조금씩 나아갔다. 처음으로 바다 위에 떠 있게 된 낭자 소식은 때때 위에 디딘 뱀발이 민감하였다. 벌써 짙은 짙은 물에 젖어 손에 들려져 있었다.

때때라 해도 뗏목 복판에 작으마한 곳을 울릴 듯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오래전에 남은 뗏목은 헤어져 쓸모가 없었다. 빈 때배는 인담이 조금씩 상안대로 저어 가며 뗏목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었다.

어느때보다 무욕도가 멀리 떨어져있는 것 같았다.

인담이 소식에게 파도소리를 이기기도 큰소리로 말하였다.

“바다가 좋은가?”

“...”
 “사람의 속이 답답한 측은 바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 사람의 성정이 험악할 땀한 측은 산중이 공부하기가 좋다. 그대는 답답한 측인가?”

...”
 “이렇게 가노라면 해 지기 전에 그대 스승을 만나볼 수 있겠다. 이로부터 그대 스승은 내가 아니라 무녀보살인지라.”

...”
 어떤 말을 해도 낭자의 대답이 있을 리

없다. 귀머거리에 뱀어리 먹물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그녀의 정신은 어떤 문답 따위를 초월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이 차츰 예사롭지 않았다. 수평선의 파도들도 벌써 툭툭거리며 바뀌어져 있었다.

“안아 있어!”

라고 인담이 서 있던 소식에게 외쳤다. 그녀는 인담의 뜻대로 앉았다.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대신 뜻을 알아듣고 있음에 틀림없다.

때배가 서로 묶여있는 부분이 부딪치며 불안하게 파도를 뚫고 나왔다. 인담은 가까워졌던 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때때로 건너갔다면 무욕도의 아늑한 한 선착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벌써 그들은 거친 파도 등장에 섬의 다른 쪽으로 패내러가는 형편이었다. 그때부터 인담은 섬에서 오래 산 사람답게 멀리 세찬

수 있었다.

그러므로는 인담이 풀속에 있는 것이 무서웠다. 지구 “으”하고 입안에서 지극히 불안정한 산음소리를 냈다. 그것만이 그녀가 할 일인 것처럼.

어 느릿 해가 수평선에 머리를 박더니 이내 수평선 너머로 빠져서 그 일대가 보였다. 이번에는 때배의 다른 쪽이 풀어서서 두개의 긴 뗏목이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이제 인담도 아닐 수 없었다. 그가 낭자에게 손짓으로 말하였다. 이를테면 뗏목 두어개를 뜰어서 그것에 의지하며 물 속에 떠 있으라는 것이었다.

먼저 인담이 뗏목으로 쓰던 긴 나무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 왔다. 그는 낭자에게 그대로 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낭자는 지구 떨어져나가는 때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서... 이리 와!”

라고 인담이 낭자의 발 밑에 있는 뗏목을 잡아당겼다. 그녀는 물 속의 인담에게 안겨야 하였다.

그림·조향숙

청정운동 실천전국대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청정운동 선언문

오늘날 이땅의 거레는 화합의 가치를 잃고 지혜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종교는 권위와 세력을 위한 집단 이기심으로 갈등의 불길이 켜배되고 있으며 정치는 권모와 술수로 감정의 대립을 계속하여 불신과 오욕의 어둠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질에 대한 무분별한 욕심은 공기과 물, 나무와 땅을 훼손하여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이 강산, 이 국토를 더럽히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결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그것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청정운동”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하나되고 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살리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선도하여 이 땅을 깨끗이 함에 큰 물줄기를 이루고자 함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본래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었으니 이땅의 거레가 수천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자각하며 “청정운동”의 대열에 우리 함께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청정운동 '96실천지침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하여

- 매주 월요일은
 - 아침 예불을 올리고 독경, 참선 등 수행을 한다.
 - 술, 담배, 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말을 삼가고 화내지 않는다.
 -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 매월 1회 이상
 - 가족이 함께 법회에 참석한다.
 - 가족과 직장 단위로 한달간 돈을 모아 보시한다.
 - 환경 개선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한다.

대회일정

지역	전주	광주	대전	논산	부산	대구	서울	
일시	6월9일(일) 오후 2시	6월18일(화) 오후 7시	6월28일(금) 오후 7시	6월30일(일) 오전 10시	7월6일(토) 오후 3시	7월7일(일) 오후 3시	7월21일(일) 오후 2시	
장소	전북예술회관	남도예술회관	무송예술회관	연무대 법당	부산일보대경당	대구시민회관	다보빌딩대법당	
연사	정병조	강건기	송석구	고은	죽정배	이기영	이기영 외	
연계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희향대회
주최	“청정운동”추진협의회							
주관	한국불교대원회 전북불교대학	한국불교개계회의 광주불교승인회	대불연총동문회 대전 대불연 동문회 외	대한민국국회공군공산단 외	대한불교광년회 대불총 부산 지구회	구도회 대한불교대불회 외	우리는 선우 대한불교진흥원	
협찬	동국제강주식회사							
문의	전북불교대학 0652-86-3977	광주불교승인회 062-226-5161	대불연대전지구 042-585-7790	호국연무서 0461-741-3734	대불총부산지구 051-862-0082	대한불교대불회 053-254-2430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